



대학주보

연이은 학생회 횡령논란... 자치기구 신뢰 하락 우려

강다은 기자 ekdms200202@khu.ac.kr
홍지민 기자 jimin4249@khu.ac.kr

호텔관광대학(호관대)과 음악대학(음대) 피아노과 학생회가 자치회비를 횡령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4일 전 호관대 부학생회장인 A 씨가 자치회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 부학생회장 A 씨가 지난해 마지막 자치회비 인준이 끝난 후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현 호관대 학생회는 입장문을 통해 “A 씨에게 자치회비에 대한 인

수인계 후 2021년 12월 10일 자 거래 내역과 이월된 자치회비 금액에 차액이 발생했음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현 학생회장에게 50만 원의 자치회비 횡령 시도를 시인하는 동시에 학생복지국 이벤트 상품 금액 영수증을 빼어버려 증명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는 입장장을 밝혔다.

또한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횡령을 시도했던 금액 50만 원을 반환받았고, 학생복지국 이벤트 상품 영수증인 8만 9000원에 해당하는 증명자료를 찾았다”며 “결과적으로는

자치회비 이월총액이 동일하고 확인위에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전 호관대 학생회장인 최성주(조리·서비스 경영학 2019) 씨는 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46대 호관대 학생회의 임기 이후, 제47대 호관대 학생회에게 자치회비 잔액을 송금하며 발생한 전 부학생회장의 독단적인 행동”이라며 타 부원과의 연관 관계는 없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자치회비 카드로 특정 사이트나 매장에서 결제를 한 것이 아니라, 전 부학생회장의 개인 통장으로

50만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횡령 했다”며 “전 부학생회장의 통장에 있던 사비와 혼용돼 쓰였다”고 말해 정확한 사용내역 파악은 어려움을 밝혔다.

횡령 논란에 휩싸인 A 씨는 “자치회비라는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과 이에 따라 불필요한 사용내역이 남은 점, 그리고 자치회비 인준 자료를 제대로 준비해두지 않은 점 사과드린다”며 사과문을 게시했지만 여전히 논란은 거리낌 없이 있다.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생회 이

재백 중앙집행위원장은 “3월 14일에 진행된 10차 중운위에서 ‘제46대 호텔관광대학 부학생회장 자치회비 횡령의 건’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의결했다”며 “교내 감사규정을 바탕으로 감사위원회 내부 회의를 통해 감사 대상자에게 요구한 사항 등 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자료가 제출되면 재정운용 세칙에 의거하여 감사 활동을 진행하고,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는 추후 계획을 밝혔다.

▶7면으로 이어짐



국제캠 보궐선거 개표완료

이동건 기자 ehdrls3589@khu.ac.kr

국제캠퍼스(국제캠) 2022학년도 학생대표단 보궐선거의 개표가 완료됐다.

개표 결과 ▲전자정보대학은 [CL; CK] 선본 구원모(전자공학과 2018) 정후보와 최유림(전자공학과 2021) 부후보가, ▲소프트융합대학은 [RE, NEW] 선본 최인열(소프트웨어융합학 2018) 정후보와 조예린(컴퓨터공학 2021) 부후보가, ▲응용과학대학은 [응답] 선본 정우창(응용수학 2018) 정후보와 이정민(응용물리학 2021) 부후보가, ▲외국어대학은 [봄] 선본 주성준(중국어학 2018) 정후보와 김민지(러시아어학 2021) 부후보가 당선됐다.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학생대표단은 2주간의 인수인계 기간을 거친 후 임기를 시작한다.

후보자 미등록으로 선거가 무산된 ▲생명과학대학 ▲중앙동아리 연합회의 선거구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돌입될 예정이다.

故 이규종 명예교수 장학기금 기부식 열려

김경민 기자 elude12@khu.ac.kr

故 이규종 명예교수(신문방송대학원)의 부인 김인선 여사가 참석

한 가운데 故 이규종 교수 운연(雲淵) 장학기금 기부식이 지난 25일 본관 213호에서 열렸다. 운연 장학기금은 기부된 총 20억 원의 재원을 바탕으로 운영된다. 김인선 여사는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사용되길 바란다”며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고

이규종 명예교수는 ▲1955년 대학 주보 창간 ▲1957년 대학의 소리 방송국 개국 ▲1958년 영자신문 창간을 주도하며 경희의 학내 언론을 다져왔으며 두 차례 신문방송 국장을 지내기도 했다. 대학은 기부자 명을 딴 강의실을 현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